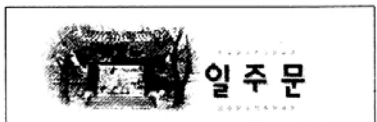




대원정사서 법문
월운 봉선사 조실은 2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한국불교대원회 초청으로 대원정사 법회에서 법문을 한다. (02)773-9171



일주문



창립 16돌 기념 연꽃염서展
정여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회장은 12일 창립 16주년 기념법회와 제1회 연꽃염서 시상 및 전시회를 가졌다.



선서화 특별 초대전
성각 남해 망운암 주지는 25-11월 3일 부산 국제신문 문화센터 제1전시실에서 소년소녀 가장돕기 선서화 특별초대전을 갖는다.



울리르게 절하는 법 지도
청견 양평 법왕정사 주지는 23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인사동 마야문화원에서 울리르게 절하는 법을 지도한다. (02)722-1050



매주 토요일 잠간선방 열어
자우 서울 금강사 주지는 11월 16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금강사 제불보전에서 시민대상 잠간선방을 연다. (02)993-3744



간병인 대학 개설·교육 착수
우학 영남불교대학장은 제1기 간병인대학을 개설하고 28일부터 적십자사와 광병원에서 이론 및 실습 교육을 시작했다.



천수경CD 5천개 무료 보급
금봉 대구 해인선원 주지는 14일 직접 녹음한 예불과 관음경, 천수경 CD 5천여 개를 제작, 무료 보급에 나섰다. (053)741-8788



'고은전집' 간행 기념식
고은 시인은 30일 오후 6시 30분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고은전집> 간행기념식을 연다. (02)745-4823



우학사 목련관 준공법회
혜봉 이천사암연합회장은 23일 오전 10시 이천 우학사에서 목련관 준공 법회를 봉행한다. (031)632-4885



국제 보살계·마정수기 대법회
현장 대구 보현사 주지는 28일 오후 2시 보현사 경내에서 세계 고승 초청 국제보살계 및 마정수기 대법회를 봉행한다.



'자녀교육과 불교' 강연
김종서 서울대 명예교수는 27일 오전 11시 서울 방배동 청룡사에서 '가정에서의 자녀교육과 불교' 주제로 강연을 한다.



보우국사 탄신 701돌 다례제
화암 경기도 용평 사나사 주지는 26일 오전 10시 30분 보우국사 탄신 701주년 기념 다례제를 봉행한다. (031)772-5182



화랑부대에 초전법륜상 봉안
혜해 은해사 포교국장은 8일 영천 화랑부대에서 석가모니 부처님과 다섯 제자의 초전법륜상을 조성하고 집안 및 봉안법회를 가졌다.



'김종직 학술대회'에 참석
조영복 동국대 사학과 명예교수는 15일 밀양시청 대강당에서 밀양문화원 주최로 열린 '김종직 학술대회'에 참석했다.



담양서 '선시명상곡' 공연
자법 제주 불광사 주지는 11월 3일 오후 2시 담양문화회관에서 담양 용화사 초청으로 '선시명상곡' 공연을 한다.



순국선열 헌일 합동위령제
설산 한국불교사회봉사회 이사장은 12일 서울 독립공원 내 독립관에서 순국선열 헌일합동 위령제를 봉행했다.



베를린서 '조각과 드로잉' 전시
한기보 조각가는 29일부터 11월 11일까지 베를린 주독일 한국대사관에서 '조각과 드로잉' 초대전을 갖는다.



법흥사 일주문 기공식
도안 영월 법흥사 주지는 17일 법흥사 중흥불사를 위한 2차 천일기도, 십만동 불사 및 일주문 기공식을 봉행했다.



삼존불 개금불사·점안식
해원 선교종 해원사 주지는 29일 용인 해원사에서 삼존불 개금불사 및 점안식을 봉행한다.



지제정사 양로원 의료봉사
김주효 전국병원불자연합회장은 46명 회원들과 함께 13일 화성 지제정사 양로원으로 의료봉사를 다녀왔다.

“산하학교 교직원 네트워크 구성”

회당학원 신임 이사장 진당 대정사



“회당학원은 앞으로 산하 학교 5백여 교직원들을 한데 묶는 네트워크를 구축, 모든 인적·물적 자원을 투명·개선·생

지향적 체질 개선 및 수익창출 모델 개발 등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설립종단과 학교법인 회당학원, 산하 학교가 긴밀하게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법인이 출생해서 종단과 법인이 하나가 되는 ‘종학일체(宗學一體) 네트워크’ 구성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진당 정사는 △학교 발전기금 조성 △정부 지원금 확보 △우수 교원 선발 및 포상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진각종의 투명화 중무행정 전통에 발

열린 학사행정으로 수익 창출 사업 개발

산이라는 경영 원칙에 입각해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14일 경주 위덕대학교 대회의실에서 제 18대 회당학원 이사장 취임법회를 가진 진당 정사(사진)는 이렇게 운영 방침을 밝혔다. 진당 정사는 “위덕대학교가 개교 7년 만에 명실공히 지역의 중견대학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그동안 회당학원이 법인 사업들을 평가한 뒤 “법인 조직의 생산

및 회당학원 역시 공명정대한 예산집행, 열린 학사행정, 최사입직의 자세 등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한 진당 정사는 “앞으로 더욱 견실한 학교법인 회당학원이 될 수 있도록 법인운영의 모든 역량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회당학원은 현재 전국 24개 유치원을 비롯해 4개의 중·고등학교, 종합대인 위덕대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방송·언론인 불자 역량 결집”

언론사불자연합회 정종철 초대 회장



언론사불자연합회 초대회장에 선임된 정종철(47·KBS 인천사업국장·사진) 회장은 언론인불자들이 하나된 모습으로 융합정진하는 모범을 보이겠다고 말

했다. “미창립 언론사의 불자회 창립을 도와 모든 방송·언론계에 근무하는 불자들의 역량을 결집시켜 나갈 것입니다.” 17일 창립한 언론사불자연합회 초대회장에 선임된 정종철(47·KBS 인천사업국장·사진) 회장은 언론인불자들이 하나된 모습으로 융합정진하는 모범을 보이겠다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불교신문 한국불교미륵종중앙교육원 개원법회



미륵종 중앙교육원 개원법회

한국불교미륵종은 15일 경남 안양에서 중앙교육원 개원법회를 봉행했다. 총무원장 송정스님을 비롯 1천여 중도들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 송정스님은 “중앙교육원은 승가와 재가 교육의 장이 될 것”이라며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정법을 펴는 중진으로 발전하겠다”고 말했다.

은해사 1193주년 개산대제



은해사 1193주년 개산대제

조계종 제10교구 본사 은해사주지 법태는 16일 개산 1193주년을 기념하는 보살계 및 만공불사 등을 봉행했다. 5천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개산대제에서 법태스님은 “은해사를 국민들에게 밝음과 희망을 주는 도량으로, 더욱 정진하는 수행처로 키워가겠다”고 말했다.

광주어머니사랑회 10돌 강연회



광주어머니사랑회 10돌 강연회

광주불교어머니사랑회(회장 최순자)는 창립 10주년을 맞아 9일 광주은행 본사 회의실에서 일본 고마자와대학 타카미 타이슈우 교수 초청 강연회를 열었다. ‘부처님도 본래는 중생이었다’를 주제로 열린 강연회에는 대문사 조실 천운스님 등 5백여명이 동참했다. 주용직 광주지사장

연중 캠페인 - 나눔의 손잡기 운동

‘후원합시다’

허리 부상... 거동 못하는 가장 엄마

후후덜고 장사 나서야 할텐데...

내달 28일, 남편의 열일곱 번째 기일이다. 딸 하늘이(17·동서울상고 2를 뱃속에 남겨둔 채 무심하게 세상을 떠나버린 날. 매년 어김없이 돌아오는 날이지만, 아직까지도 아내(최갑원 49)는 응어리진 마음을 풀 수 없다. 스무 살 전, 전라도 광주에서 올라와 건설현장에서 심부름을 하다 남편을 만났다. 1년 연애 끝에 혼인신고도 하지 않고 무작정 서울 관악구 봉천동 판자촌에 동지를 틀었다. 그리고 가졌던 딸 하늘이. 그러나 임신 8개월 쯤이던 그해 늦가을 남편은 오토바이 사고를 내고 갑자기 세상을 떠나 버렸다. 남편이 떠난 빈자리에 핏덩이 딸이

넘어지는 바람에 허리를 크게 다쳤다. “다쳐자마자 병원에 곧바로 가야 했어요. 하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하늘이도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하면서 용돈을 벌며 쓰고 있는데, 어떻게 나만 살고 수술을 받을 수 있었겠어요?” 최 씨의 요통은 심해져만 갔다. 결국 참다못해 최 씨는 지난해 5월 동사무소의 도움으로 적십자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았다. 허리에 쇠기둥을 4개나 집어 넣는 큰 수술이었다. 하지만 수술 결과가 좋지 않았다. 재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게 됐다. 정부에서 받는 40만원 보조금으로 연명을 하고 있는 최 씨에 엄청난 재수술비는 입두도 못 낼 부

답이었다. 그래서 아예 수술을 포기하고 산다. 상황이 이러다보니 딸 하늘이에 대한 최 씨의 걱정은 늘 어만 간다. 학교가 멀어 통학 시간이 많이 걸리는 데다가 밤 12시까지 하는 아르바이트로 비쩍 마른 하늘이를 볼 때마다 마음이 무겁다. “수술 후에는 건강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대학에 가려고 아등바등 공부하는 하늘이를 보면 빨리 일어나 일해야 한다는 생각만 굴뚝같은데... 하늘이에게 무슨 죄가 있었어요. 부모 잘못 만난 것이 죄라면 죄죠. 남편처럼 그 흔한 학원도 제대로 못 보내고...”

능 위에 놓여있는 저울. 최 씨가 힘겹게 눈짓으로 가리킨다. 리어카 행상할 때 썼던 거란다. 최 씨는 자리를 훌훌 털고 다시 장사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주소 : 서울 중랑구 신내동 신내현대 아파트 1002동 109호 전화번호 : (02)3421-3870 후원계좌 : 새마을금고 0537-09-000164-1(예금주 최갑원) 김철우 기자

◇“보살님 침내세요! 하늘이가 있잖아요.” 최갑원 씨의 집을 찾은 일광사 청정심 보살이 손을 잡아 주고 있다.

경명주사로 직접 제작한 불서화의 대가

태광 선사의 행운의 달마 길상도

▷백팔달마 팔문 재수부

▷12마 수복 달마

▷달마 백복도

▷금분 불자 달마색상제

▷불자 반야 심경

- * 각종 대한민국 미술대전 공모전, 한국예술상, 대상 및 수상다수, 추천작가 및 초대작가.
- * 현, UN IAEWP 한국대표부 문화예술 전문위원.
- * 현, 사단법인 대한불교 선각종 문화국장.
- * 현, 한국어린이 보호재단 특심사 후원회장

불사 주문 신청 : 국민은행 075-01-0349-506 특심사

전화 : 021839-7829

판매금액의 일부는 사회복지법인 한국어린이보호재단 심장병 어린이 돕기에 기증합니다.